

체육교사의 학창시절 스포츠 경험의 의미와 가치

유 창 완(선유중학교 교사)*

손 천 택(인천대학교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체육교사의 학창시절 스포츠 경험을 이야기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동시에 유쾌한 스포츠 경험이 체육교사의 교육내용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체육교사 2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였다. 교육관련 문서, 수업일지, 연구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창시절의 스포츠 경험에 관해 ‘민’ 교사는 “탁구는 재미있는 놀이”, “탁구 경기의 승패로 얻은 결실”, “좋아함과 가르침의 괴리(乖離)”, “탁구에 대한 열정과 성장”, ‘한’ 교사는 “야구는 호기심과 부러움의 대상”, “유행 따라 달라진 스포츠”, “가르침의 열정과 실패”, “좋아하는 스포츠 가르치기”로 이야기하였다. 결국, 체육교사는 학창시절의 스포츠 경험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스포츠 친화적 인식을 성장시킴으로써 자기가 잘 하고 좋아하는 스포츠를 교육내용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주제어 : 스포츠 경험, 몰입경험, 스포츠 인식, 체육교사

I. 서론

체육과는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행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과거 운동기능 중심의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에서

* 제1저자

** 교신저자, cheontaik@incheon.ac.kr

출발한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단순히 운동기능을 습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신체 활동 가치를 어떻게 내면화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유정애, 2007).

그러나 가치의 내면화는 인위적인 교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체계적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실히 교육되기 어렵다. 가치덕목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사적인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고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형식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다(최의창, 2010).

따라서 체육교사는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겪는 스포츠 경험이 어떻게 엮이어 가는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손천택, 2009). 체육교사가 이러한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체육교사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과정으로 성장해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Arnold, 1997; Jones, 2005).

체육교사가 자기 자신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체육교사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 이전의 경험은 무엇이며,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식의 형성을 위한 체육교사의 경험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Sparkes(1989)는 중·고등학교 때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체육수업에 대한 경험이 현재의 체육수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대학에서 배운 기능 위주의 스포츠 중심적 수업이 스포츠 중심적 교육관을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Grossman(1990)의 경우 교사의 전문 지식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들은 사회화 과정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용(1994)은 체육교사의 전문지식 형성은 대학에서의 교육보다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체육에 대한 경험과 체육교사로서 의미 있는 만남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류태호(2000)도 체육교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도 체육교사의 지식형성 과정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체육교사가 되기 전후의 공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김기철, 2000; 이효진, 1996).

그런데 체육교사의 전문지식 형성 과정은 그가 갖는 공적 경험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사회적인 경험을 하며, 사회적 관계와 맥락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에 토대를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기도 하다(Dewey, 193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공적 스포츠경험만으로 한 교사의 스포츠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적인 스포츠 경험은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몰입’하여 얻는 소중한 스포츠 경험으로서 스포츠 가치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전현욱 등, 2009). 이 같은 어린 시절의 사적 스포츠 경험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밝혀 체육수업에 적용하려는 의도나 도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 나아가 가치의 내면화는 한 개인의 사적 경험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 될 때, 어린 시절 스포츠에 대한 사적 경험이 체육교사의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체육교사의 학창시절 스포츠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스포츠 경험의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記述)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경험적 특성 요인들을 보다 의미 있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적 지식(narrative knowledge)’을 활용한 기술과 표현이 적절하다. 학창시절 스포츠 경험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해하면 자의적 해석에 따른 내용의 왜곡과 의미전달의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의 의도나 내적 의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탐구의 또 다른 장점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그 이면의 인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양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미숙, 2004).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체육교사의 어린 시절 사적인 스포츠 경험이 체육교사의 전문지식의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찾는 데 목적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청소년기에 스포츠에 대한 어떤 사적 경험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체육교사로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 식으로 밝히는데 있다.

II. 연구절차

1. 연구 배경

“체육교사가 체육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내용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교과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은 교직 경력 20여 년 동안 연구자를 비롯한 주변의 체육교사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불일치 현상은 경력이 쌓일수록 더 커져간다. 체육교사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수업내용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체육수업을 반성하면서, 남교사로서 가르치기 힘든 무용을 배워 가르쳐도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

없는 내용으로 기억에만 남아있다. 체육교사가 좋아하거나 잘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관련 수업을 수강하면서 체육교과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양한 체육교과 내용들 가운데서 특히 내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종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험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회상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체육교사이면서 동료연구자인 ‘민’교사와 ‘한’교사를 만났다. 두 명의 교사 역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 비슷한 회고적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두 교사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의 스포츠 경험과 그것이 나의 교육내용의 선정 및 교육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혀 나의 체육 교육적 행위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연구심이 발동하였다.

우선 자신의 스포츠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여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였다. 체육교사들은 학창시절 경험한 스포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동료 체육교사들에게 학창시절 자신의 스포츠 경험을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2. 연구 참여자

내러티브 탐구에서 사람들은 체험된 이야기의 구현체(embodiment)이다. 즉, 사람들은 사회적 문화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며 탐구의 핵심이 된다(Clandinin & Connelly, 1999).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는 학창시절 스포츠 경험을 구체적으로 구술하고 기술해 줄 수 있는 인물들로 선정하였다.

가. ‘민’교사

‘민’교사는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뉴스포츠를 수업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다. 즉,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이다. 특히 ‘민’교사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탁구를 10년째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민’교사에게 탁구를 배우기 위해 항상 기준 인원을 넘기며 탁구반에 몰려들고 있다. 학교 체육 수업시간에도 탁구를 교과내용으로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이전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탁구 기본 기능, 3학년 과정에 탁구 경기 기능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탁구를 배운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내 탁구대회도 개최하여 탁구 붐을 조성하였다. 교내에 탁구대가 부족하지만, 학교장을 계속 설득하여 탁구대를 추가로 들여옴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는 고급 탁구대가 7대나 비치되어 있다. ‘민’교사

는 탁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활력소를 얻고, ‘민’교사 자신도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 ‘한’교사

‘한’교사는 전통스포츠 중에서 농구와 배구, 육상 이어달리기를 많이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 뉴스포츠를 도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협동학습모형과 스포츠교육모형을 이용한 모형 중심 체육수업에도 도전하고 있다. ‘한’교사는 특히 아이들과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 운동장에서 우연히 야구를 하는 아이들과 공을 던져주며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들의 요청으로 야구반을 만들게 된 것이다. 학교 체육 시간에도 야구와 비슷한 소프트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야구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비로 운동장 구석에 야구망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한’교사는 야구를 통해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야구의 참 맛과 멋을 느끼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체육교사의 학창시절 스포츠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내러티브 탐구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말하기, 다시 말하기,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의 과정을 통해서 밝히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일은 내러티브 시작 단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 자신의 탐구를 시작한다. 즉, 현재 입장을 형성하게 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적인 것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위치 지운다(Clandinin & Connelly,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참여 체육교사가 현재 상황에 이르게 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과거 스포츠 경험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이야기로 엮어 현재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인터뷰를 채택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총 6회 실시하였으며, 이야기의 전 과정을 녹음하여 개인 내러티브를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일지를 작성하여 연구 참여자와 만날 때 ‘다시 이야기’ 하면서 그것을 공유하였다. ‘다시 이야기’ 과정 역시 녹취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밖에 연구 참여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연구 참여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서 받은 수업 소감문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수집된 텍스트 자료는 Clandinin & Connelly(1999)이 제시한 분석 단계(broadening,

burrowing, storying, and re-storying)에 따라 분석하였다. 넓게 보기(broadening) 단계에서는 체육교사가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갖게 된 스포츠 경험을 환경적 맥락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두 번째 깊이 바라보기(burrowing)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전 생애에 걸쳐 경험했던 스포츠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학창시절의 스포츠 경험이 어른이 되는 과정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부딪친 현실이나 사건 또는 관계성 등을 재구성하였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이야기하기(story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storying)에서는 재구성된 인식과 경험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시 이야기 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과거 학창시절의 사적 스포츠 경험이 체육교육 활동의 중심 내용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스포츠 경험 속에 내재된 특징과 의미들을 찾고자 하였다.

III. 결과 : 스포츠 경험 이야기

현장 텍스트를 충실히 구성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의 일부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를 집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각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경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각 연구 참여자의 특별한 사적 스포츠 체험의 세계를 파악하였다. 체육교사는 중고등학생으로서 그리고 체육교사로서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 중심의 체험을 하고 있었다. ‘민’교사는 우연히 탁구를 접하게 되어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탁구를 어느 스포츠보다 우선적으로 가르치면서 탁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교사는 야구를 통해 스포츠를 처음 접하였지만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한 결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가르쳐 왔으며,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1. ‘민’교사의 스포츠 경험

가. 탁구는 재미있는 놀이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했던 날이었다. ‘민정우’ 학생의 집 앞에는 파출소가 있었다. 시골의 파출소는 한적했다. 어렸을 적 문 앞을 나서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파출소는 그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었다. 어느 날 유난히 정우의 눈에 들어온 풍경이 있었다. 바로 파출소 마당에 놓인 탁구대였다. 짙은 녹색으로 칠해진 탁구대에 사람들이

모여 하얀 공을 네트 너머로 넘기며 환호성을 질렀다. 정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탁구대가 놓인 파출소 마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파출소 마당에 놓인 탁구대는 집 앞을 벗어나면 언제나 찾게 되는 자신의 놀이 공간이 되어 있었다. 누구에게 특별히 배운 기억도 없지만 그는 늘 탁구채를 손에 쥐고 살았다.

이렇게 시작한 탁구는 정우의 친한 놀이가 되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심심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눈에 띈 탁구 채를 보고 혼자 탁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벽을 향해 공을 치고 노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초등학생 ‘민정우’는 탁구에 거의 미쳐 있었다. 상대선수가 있어 그와 연습하는 것만큼 재미가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저녁식사 요청을 할 때까지 탁구를 즐기곤 했다. 탁구에 빠진 행동은 가정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면 좁은 책상 두 개를 붙여 탁구대로 삼아 탁구를 하였다. 중학생이었던 정우는 좁은 공간에서 탁구공을 주고받으면서 탁구의 스틸을 만끽하였다. 탁구 채가 없을 때는 책받침을 이용하여 시작종이 울리는 줄도 모르고 탁구를 쳤다.

탁구를 치면서 노는 활동은 교실 밖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정우가 다니던 시골 중고등학교 넓은 운동장 주변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탁구대가 여러 대 있었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탁구대 표면이 탁구를 하기에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탁구광 정우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탁구공을 탁구 네트 너머로 넘기기만 해도 만족하는 그와 친구들에게는 시멘트 탁구대가 즐거운 놀이터였다. 그는 쉬는 시간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구들과 시멘트 탁구대로 달려가 탁구 삼매경에 빠져들곤 했다. 정우의 탁구사랑은 동네 탁구장에서도 이어졌다. 몇 개 안되는 시골 탁구장에 정우는 늘 단골손님이었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포츠인데다 가끔 기능수준이 비슷한 친구들과 내기탁구를 하는 재미도 있었기 때문이다.

추석이라 시골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때였다.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탁구를 가르친다고 하자 누나는 옛날을 회상하며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탁구 못 치던 사람은 별로 없었고, 친구들 끼리 만나면 으레 탁구장으로 가서 시합을 하고 탁구비나 떡볶이 내기를 했던 이야기를 했다(‘민’교사의 일기).

이처럼 ‘민정우’는 학창시절 우연한 기회에 탁구를 접하게 되어, 탁구와는 떨어지지 않은 시절을 보냈다. 집에서는 벽에 대고 혼자서 탁구를 치고, 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에 일회용 탁구대를 만들어 친구들과 즐겼으며, 학교 운동장 동네 탁구장을 자신의 놀이터며 삶의 현장으로 누비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어린 시절 ‘민’교사에게 있어서 탁구는 여가 시간의 전부였으며, 삶의 모든 것이었다.

나. 탁구 경기의 승패로 얻은 결실

탁구를 계속하면서 ‘민정우’는 탁구실력이 향상되고 친구들 사이에선 탁구를 꽤 잘 치는 학생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던 그가 탁구선수출신의 체육교사와 탁구시합을 하게 된 것이다.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탁구를 하며 보냈고, 친구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터라 체육교사에게 도전해 보기로 하였다. 탁구선수 출신인 체육교사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민정우’에게 21점 경기에서 19점을 주고도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결과는 체육교사가 호언장담한 대로였다. ‘민정우’는 단 한 점도 따지 못하고 시합에 패하였다. 자신의 탁구수준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였다. 그러나 그 패배가 탁구에 대한 정우의 사랑을 꺾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탁구를 더 잘 치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겸손한 마음도 생겨났고 탁구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탁구에 대한 그의 사랑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의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할 때까지 시들지 않았다. ‘민정우’ 예비체육교사는 대학 2학년 때 전공실기 과목으로 탁구를 수강하게 되었다. 탁구를 한 번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고 탁구를 곧 잘 치므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대학 때 체계적으로 탁구를 배우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민’ 예비체육교사는 탁구를 수강하면서 탁구를 좋아하던 수준에서 발전하여 탁구를 체계적으로 익혀 기술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탁구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포핸드쇼트스트로크」, 「쇼트」, 「커트」 등과 같은 탁구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탁구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탁구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혼자 즐기만 했던 탁구놀이가 자신의 선호스포츠 또는 그에게 가장 자신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탁구에 대한 사랑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계속되었다. 탁구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탁구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탁구를 잘 치는 선후배를 만나면 자신의 탁구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내기를 하곤 하였다. 주로 대학 주변의 탁구장에서 내기를 하기 일쑤였다. 가끔 게임에 이겨서 유쾌하게 소주잔을 나눈 적도 있지만, 패배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어느 날 대학주변의 한 탁구장에서 후배와 탁구대 앞에 마주섰다. 볼 컨트롤이 좋은 후배에게 완패를 당한 것이다. ‘민’ 예비교사는 자기와 같은 아마추어에게 완패를 당한 다음 자신의 탁구실력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돌이켜 보았다.

그러나 ‘민’ 예비교사는 패배에 집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탁구를 즐기고 자신의 기량을 시험하며 도전해볼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체육교사로서 탁구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다. 좋아함과 가르침의 괴리(乖離)

‘민정우’ 교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체육교사로 임용되어서도 탁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 이어갔다. 초임학교에 발령을 받자마자 탁구장이 있는지부터 살폈다. 다행히 부임한 학교에 탁구를 좋아하고 잘 치는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과 탁구를 치며 친분을 쌓을 수 있었으며, 탁구를 통해 쌓은 친분이 학교생활 적응에 적잖게 도움이 되었다. 학교의 교직원이 참가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탁구를 즐기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의 교직원들과 주로 즐기는 탁구를 해 오다가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면서 다른 어떤 종목보다 탁구에 자신이 있는 ‘민’ 체육교사는 특기적성종목으로 탁구를 개설하기로 결심하였다. 교육청이 방과 후 특기적성프로그램의 운영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었고, 딱히 개설할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민’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탁구였다. 막상 탁구종목을 개설하기로 결심은 하였으나 탁구대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다. 교무실 옆 현관에 2개의 탁구대를 설치하여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연습이 없을 때에는 접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민’교사의 탁구와 탁구지도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었다. ‘민’교사의 그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탁구 가르치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대학에서 탁구수업을 수강하긴 하였지만 탁구내용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탁구지도능력이 부족하여 특기적성교육은 실패로 끝났다. ‘민’교사는 특기적성교육의 실패를 통해서 좋아하는 것과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과의 큰 차이를 절감하고 탁구 가르치기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하였다.

라. 탁구에 대한 열정과 성장

학교를 옮겨서도 ‘민’교사의 탁구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었다. 학교를 옮기면서 학생들과 함께 즐길 스포츠를 찾다가 결국 가장 자신 있는 탁구를 선택하였다. 막상 수업을 하려고 하니 탁구대를 놓을만한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체육실 앞의 탈의실과 체육 기구실을 정리하여 탁구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좋아하던 탁구를 교과내용으로 선정하여 가르치게 된 것이다. 특기 적성반을 제외하면 학생들에게 탁구를 직접 가르친 경험이 없는 ‘민’교사로서는 초보자를 가르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탁구를 좋아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도방법도 거듭하여 가르치면서 조금씩 효율적인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점차 자신감이 불기 시작하였다.

탁구에 의욕을 보이던 성민이가 한동안 탁구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결까? 탁구반 다훈이에게 성민이가 요즘 탁구 배우러 통 나타나지 않는지 이유를 물었다. 다훈이의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다. 성민이가 기술이 향상되지 않아 더 이상 탁구를 치기 싫다고 했다는 것이다. 성민이가 기술을 늦게 배워 진도를 늦게 나갔던 것인데... ('민'교사의 수업일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의 개인 성향에 따른 다양한 내용과 교수법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민'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탁구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의 기능향상을 대비하여 어려운 기술을 익혔다. 서점에서 탁구에 관한 책을 구입하여 이론공부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찾아 동작을 연구하였다.

'민'교사는 탁구가 좋아서 선택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연구하며 지도를 하였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연간지도계획에 탁구를 포함시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탁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민'교사는 학생들이 정규교과로 배운 탁구 실력을 서로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내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탁구를 하나의 학교생활 문화로 수용하고 나아가 생활스포츠 종목을 실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였다. '민'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탁구는 이제 그 학교의 중요한 스포츠 문화가 되었다. 그 후 학교를 다시 옮겨서도 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특기적성교육으로 아침반 탁구를 개설하여 교내뿐만 아니라 인근학교와 정기 교류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우고 있다. 탁구 좋아하는 어린 소년이 탁구 잘 가르치는 '민'교사로 성장한 것이다.

2. '한'교사의 스포츠 경험

가. 야구는 호기심과 부러움의 대상

'한영민'은 초등학교 시절 시골에서 살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야구 비슷한 놀이를 했다. 신문지로 배 모양을 만들어 글러브로 사용하고 야구볼 대용으로 고무공을 주고받으며 야구 놀이를 하였다. 생활 주위에서 야구 글러브나 볼을 쉽게 볼 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야구놀이를 좋아하던 어린 영민이에게 글러브를 갖는 것은 커다란 소원이었다.

영민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좇아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는 학교 안팎에서 야구하는 장면들을 목격하였다. 자기가 신문지로 배 모양을 만들어 고무공을 주고받던 그 놀이가 바로 야구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 영민이는 본격적으로 야구를 접하면서 글러브를 가졌으면 하는 소망과 함께 각종 야구 장비를 갖춘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어떻게 해서라도 야구를 잘해 어린이 야구회원이 되고 싶었다.

어린이 회원을 모집하곤 했어요. 야구어린이 회원 모자 쓰고 장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린이 야구회원 가입이 안 되는 가정 형편인데 때쓰다가 부모님한테 혼 많이 났어요 (‘한’교사와의 인터뷰).

그러다 우연히 사촌형이 야구 글러브를 빌려줘 야구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다. 그것이 영민이가 기억하는 야구에 대한 첫 기억이었다. 영민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동네아이들이나 가까운 이웃에 사는 또래들과 끊임없이 야구를 했다.

나. 유행 따라 달라진 스포츠

영민이가 야구를 좋아하게 된 데는 유행도 한 몫 하였다. 그가 초중등학교를 다니던 1982년 당시는 프로야구가 크게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다. 야구를 좋아했던 영민이는 스포츠 유행을 쫓아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TV의 야구 중계를 보곤 하였다. 그는 잠실야구장이 보이는 곳에 살면서 야구 관중들의 함성을 들으며 야구에 흠뻑 빠진 적도 있다. 다니던 중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긴 하였으나 선수생활은 하지 않고 대신 야구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다.

중고등학교 때는 농구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농구 붐이 불었어요. 언론매체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1987년도에 점보시리즈에 현대랑 삼성이랑 경기하고 막 농구 붐이 일었던 때였거든요. 선배들 있을 때는 못하고, 눈치 봐서 친구들과 농구를 했죠 (‘한’교사와의 인터뷰).

영민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때는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농구도 대단한 붐을 일으키고 있던 시절이다. 그래서 야구 못지않게 농구도 좋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즐겼다. 또한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에서 유남규나 한정화와 같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서 탁구도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가끔 친구들과 농구를 하기도 하였지만 탁구의 매력에 이끌려 거의 매일 탁구를 치다시피 한 적도 있다. 다행히 탁구장이 많이 생겨 돈만 있으면 탁구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누나나 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탁구를 잘 쳤다.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하면서 배구부에 들어가 타 대학 학생들과 배구 교류전도 하곤 하였다. 보디빌딩을 하여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데도 관심을 가졌다. 열심히 몸을 만들어 교내 보디빌딩대회에 출전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생 ‘한영민’과 예비체육교사 ‘한영민’은 스포츠 유행을 쫓아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였다.

다. 가르침의 열정과 실패

‘한영민’교사가 초임 발령을 받은 학교는 실내 체육관이 없어 배구나 농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학에서 배구부 활동을 했고 농구도 꽤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들 중목을 가르

치고 싶었으나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축구를 맡게 되었다. 다행히 축구는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중학교 때 축구선수생활을 한 형을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축구를 익혔던지라 그 때 배운 실력으로 축구반을 맡아 가르치게 되었다. 야구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었고 관심도 적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축구를 선택하게 된 거죠. 교사가 경험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가르칠 환경이 되니까 선택을 한 거죠. 꽤 괜찮았어요. 한 2년 했어요. 그때가 2000년도니까 월드컵 전이라 예선전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유니폼도 맞춰줬어요. 애들이 무지 좋아했죠 (‘한’교사와의 인터뷰).

얼마 후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였으며, 그 학교에는 체육관이 있어 농구를 가르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농구를 무척 좋아했고 ‘한’교사도 중고등학교 때 농구를 좋아했었고 대학시절 농구를 가까이 했던지라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그 학교에는 축구반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말을 교사가 없어 축구에 문외한이 아닌지라 농구반에 더해 축구반까지 맡게 되었다. 그런데 축구는 운동장이 좁아 미니 게임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기초 기능과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전략 중심으로 지도를 하였으나 막상 대교경기를 하면 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농구반만을 책임지도 하였다. 그 후 또다시 옮긴 학교에서는 탁구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탁구를 배운 적도 없고 이해도 부족하여 탁구반을 맡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중도포기를 했다. ‘한’교사는 자기가 할 줄 모르는 스포츠는 맡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뼈아픈 체험을 하였다.

탁구반을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실력도 잘 안 늘고 아이들 흥미를 자극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재밌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동기부여가 잘 안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학생이 아빠랑 탁구장을 갔는데 아빠가 “너는 한 학기동안 탁구를 했는데 실력이 이 정도 밖에 안되냐”고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죠 (‘한’교사와의 인터뷰).

라. 좋아하는 스포츠 가르치기

‘한영민’교사는 어느 날 학생들이 야구공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하였다. 학생들의 야구반 창단 요구가 있었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가 좋아하는 야구반을 만들었다. 야구는 ‘한’교사가 어릴 적 무척이나 좋아했던 운동이고 초등학교 때는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던 스포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오랫동안 야구를 하지 않았지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해 보니 캐치와 배팅 감이 생각보다 빨리 살아났다. 계속해서 야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야구경기를 계속 시청하거나 관람하면서 야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동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다들 비싼 야구 글러브를 끼고 야구를 하고 있었죠. 그 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캐치볼도 좀 해주고, 던지는 법도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반을 만들게 되었죠 (‘한’교사와의 인터뷰).

좋아하는 야구지만 막상 가르치려고 하니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직접 해 본 경험과 야구경기의 시청을 통한 간접경험을 종합하여 학습지도를 계획하였지만 어려운 노크볼 치기 등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좋아하는 야구를 즐겨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구 전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진 것으로 기술지도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의외로 회원이 크게 늘어나 스테이션 교수를 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장비와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 정말 재미있게 야구를 하면서 가르치고 싶었다. 행정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마스크를 구입하고 그물을 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는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야구를 좋아하는 ‘한’교사는 학교가 안전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장비를 구입해 주지 않을 때는 사비를 들여 학생들과 함께 야구를 해 왔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인지라 사비를 들여가며 야구반을 운영해 왔는데, 그 이상의 부담은 할 수 없었어요. 학교를 설득했는데 마침 야구를 좋아하는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서 많은 것이 해결됐어요 (‘한’교사와의 인터뷰).

처음에는 잘 모르고 노크볼을 나무배트로 쳤는데, 노크볼 치는 배트가 따로 있었어요. 노크용 배트는 가볍고 길죠. 배트 끝에 맞으면 잘 나가고요. 그래서 노크용 배트를 구입했죠 (‘한’교사와의 인터뷰).

IV. 논의: 스포츠 경험 다시 이야기하기

1. 몰입경험과 스포츠 세계로의 입문

어린 시절의 스포츠 경험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스포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놀이의 형태로 스포츠를 만나게 된다. 제도화된 스포츠라기보다는 생활형 신체활동 혹은 운동놀이로 스포츠를 즐겁게 경험하는 가운데 특정 스포츠의 특별한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놀이는 특성상 참가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과 행동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마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김영희, 2002). ‘민’교사와 ‘한’교사가 어린 시절 그저 야구나 탁구가 좋아서 그것에 빠져들었던 것은 그 운동놀이에 내재된 특별한 즐거움 때

문이었다. 그들은 스포츠 놀이가 주는 참 재미(enjoyment)의 마력에 이끌려 좁은 방의 벽을 향해 탁구를 하고, 모래사장에서 종이 글러브로 고무공을 주고받는 야구를 즐겼던 것이다. 이들은 스포츠에 몰입함으로써 자아와 스포츠놀이 공간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로 인한 강한 내적 동기가 발동하여 스포츠가 주는 순수한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Csikszentmihalyi, 1995; 임승엽, 2000)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가 제공하는 독특한 경험과 의미는 갖춘 공간과 규정된 장비가 있을 때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공간이 그곳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면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전용진, 2008). ‘민’교사와 ‘한’교사를 탁구와 야구에 빠져들게 한 것은 규정된 장비와 규격화된 스포츠 공간이 아니라 각 스포츠가 갖는 독특한 즐거움과 그것이 갖는 참가자와의 역동적인 관계이다. 어린 ‘민정우’와 ‘한영민’에게 있어서 탁구와 야구는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였으며 그것은 방에서 벽을 향해 할 수 있는 탁구이고, 종이 글러브로 고무공을 주고받는 야구였다. 스포츠 공간이나 장비가 스포츠에 입문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몰입을 가속화시키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초기 입문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었다.

대개 어린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특정 스포츠를 접하고 각 스포츠가 갖는 특징적 재미요소에 매료되어 스포츠에 몰입하게 된다(이상일, 2010). 어린이들이 특정 스포츠에 몰입하게 되는 단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아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스포츠를 맞이하여 그것이 제공하는 즐거움에 빠져들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여 그 즐거움을 공유하려 한다(안진호·이근모·김준, 2008). 어린 ‘민정우’는 또래 아이들과 탁구를 치며 내기를 하고 주변의 친구들과 경기를 하면서 우애감과 연대의식을 기르고 소통능력과 사회적 관계형성 기술을 터득하였다(김정건, 2004). 이처럼 스포츠 놀이에 대한 몰입의 경험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스포츠 경험으로 발전하며, 점차 스포츠의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학습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어린이들이 우연히 어떤 스포츠를 접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즐거움으로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제도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탐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기능 향상 욕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이상일, 2010). 연구에 참여한 ‘민’ 예비교사와 ‘한’ 예비교사는 스포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안팎의 스포츠 공간을 찾아 연습을 하고 경기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경기에서 패배하여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스포츠를 체념하지 않고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며 기능향상에 도전하였다. 이들은 체육교육과에 진학하면서 스포츠 기능을 향상시키는 노력 못지않게 자신이 즐기며 경험한 스포츠를 보다 잘 가르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며 스포츠 입문을 완성시켜 나갔다.

2. 스포츠 친화적 인식의 성장

인간은 개인 존재로서 자기(自己)를 의식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특히, 주체로서의 자아(自我)는 알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들은 스포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즐거움을 경험하며 자아의식을 성장시킨다. 스포츠를 통한 자아의식은 청소년기에 더욱 명료해진다. 또한 자아의식은 시간을 두고 어떤 행위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더욱 발전한다(Freeman, 1987). 연구에 참여한 ‘민’교사와 ‘한’교사는 놀이와 이어지는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그것이 제공하는 유쾌한 경험이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기능이 향상되면서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 가지 스포츠에서 유쾌한 경험을 하면 그 활동에 계속 몰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스포츠에서 동일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민’교사는 한 가지 스포츠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교사는 스포츠가 제공하는 유쾌함과 유행을 좇아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의 재미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교사는 ‘민’교사와는 달리 한 가지 스포츠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 다른 스포츠에 도전함으로써 각 스포츠의 독특한 재미요소를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 친화적 인식을 키워가고 있었다. 김정건(2004)도 스포츠는 청소년들에게 경쟁적 상황을 만들어 생활원리를 습득케 하는 외재적 가치와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경험으로 그것과 더욱 친숙해지고 유쾌한 삶을 유도하는 내재적 가치를 동시에 내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교사는 주로 한 가지 스포츠에 몰입하면서 ‘한’교사는 스포츠 유행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그에 따른 스포츠 친화적 인식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스포츠 친화적 인식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다양한 환경에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도전으로 생각하고 활동 자체에 관심과 흥미를 가져 스스로 목표를 세워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약한 사람은 성취 활동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어서 과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박상범·정우현, 2000). ‘민’교사와 ‘한’교사는 기능이 향상되면서 경쟁을 통한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였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잘 승화시켜 스포츠 친화적 인식을 계속 유지하였다. 특히 패배의 경험을 자신의 운동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전함으로써 스포츠 친화적 행동을 지속하였다.

‘민’교사와 ‘한’교사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에서 찾

고 자기-효능감을 빠르게 회복하여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패배가 반드시 자기-효능감의 저하와 그로 인한 스포츠와의 소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자기보다 나은 실력자를 만나 경기에서 패하는 것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숙고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영희 · 이수식, 2006). 특정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은 그 스포츠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가하는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Dishman et al., 2005).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가끔 경험하는 패배가 ‘민’교사와 ‘한’교사의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이들은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방향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스포츠 친화적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다.

3. 친숙한 스포츠 경험의 선정과 적용

인간이 경험 없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선행 경험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경험을 포함한 모든 인간경험은 기존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재구성하여 창의적 대안을 찾는다(Ruggerio, 1984). ‘민’교사와 ‘한’교사 또한 어린 시절의 유쾌한 운동경험과 청소년이 되면서 새롭게 체험한 스포츠 경험, 그리고 예비체육교사로서 얻은 스포츠 지도경험과 관련하여 체육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있었다. 체육교사가 어린 시절 경험한 스포츠 놀이에 대한 유쾌한 경험과 제도화된 스포츠를 즐기면서 얻은 재미 있고 소중한 경험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내용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두 체육교사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즐거운 스포츠 경험을 예비체육교사가 되면서 체계적으로 익혀 학생들이 체험하는 유쾌한 경험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스포츠에 대한 자신의 유쾌한 경험을 학생들의 스포츠 경험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활동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로인해 그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두 교사는 자신이 경험한 스포츠를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경험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스포츠의 수행력, 스포츠 지도여건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민’교사의 경우 한 가지 스포츠에 몰입한 교사로서 자신의 스포츠 수행력을 믿고 지도여건을 개선하거나 조성하여 교과활동과 교과 외 활동으로 탁구를 가르치며 탁구문화를 만들어 갔으며, ‘한’교사는 지도능력이 부족하거나 지도여건이 미흡하여 중도포기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자기가 좋아하고 지도여건이 허락하면 또다시 새로운 스포츠를 선정하여 지도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두 교사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학생들에게 ‘스포츠 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그것에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때 그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박용현·박동환, 2001). 우연히 놀이로서 스포츠를 맞이해 그것에 몰입하고,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한 ‘민정우’와 ‘한영민’학생은 그 즐거움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기능과 경기능력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경험한 스포츠의 즐거움을 대학의 체육교육과로 진학하여 발전시켰다. 자신이 좋아하는 실기강좌를 수강하며 다양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클럽 활동이나 기타 과외 활동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스포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어린 시절 경험한 ‘스포츠 하는 즐거움’이 체육교사가 되어 체육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지도활동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과 내용을 선정할 때도 체육교육과정에 의거하지만 자신이 잘 하거나 좋아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교과 수업에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기적성이나 클럽활동 등 교과 외 활동으로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두 교사가 이토록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학창시절 자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스포츠를 그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기 때문이었다(박용현, 박동환, 2001). 연구 참여자들은 스포츠에 대한 유쾌한 경험을 회상하며 감상에 빠져 준비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느꼈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영상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스포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참고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방법을 찾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스포츠 하는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체육교사가 어린 시절 경험한 ‘스포츠 하는 즐거움’의 의미와 그것이 체육교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체육교사의 교육내용 선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으로 스포츠를 가르치는 2명의 체육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학창시절 스포츠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그들의 체육교사로서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였다. 두 체육교사의 스포츠 경험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스포츠 입문은 비형식적 스포츠에 참가하면서 몰입을 경험하고 점차 형식적인 스포

츠를 즐기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처음에는 놀이의 형태로 스포츠를 즐기지만 점차 특정 스포츠의 재미요소에 빠져드는 것이다. 스포츠에 몰입하는 조건은 환경적 여건 못지않게 스포츠 공간과 참가자 간의 즐겁고 의미 있는 관계이다. 스포츠가 참가자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삶의 행복요소가 되면 기능과 경기능력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연습하며 그 즐거움을 지속시킨다. 스포츠 세계로의 입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어린이들은 스포츠에 참가하여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자아의식이 발전되어갔다. 스포츠적 자아의식은 청소년기 제도화된 스포츠를 경험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스포츠를 통한 유쾌한 경험으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스포츠 수행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생기면 자신이 선택한 스포츠에 더욱 열정을 갖게 되고, 그 스포츠가 제공하는 재미로 인해 스포츠 친화적 인식이 성장하게 된다. 일단 특정 스포츠에 대해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면 자기-효능감이 강해지고, 자기-효능감이 강해지면 패배를 경험해도 그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포츠 친화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두 체육교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포츠 친화적 인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셋째,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스포츠 하는 즐거움’과 예비체육교사로서 획득한 그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체육교육 내용선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체육교사가 어린 시절 경험한 스포츠에 대한 유쾌한 경험과 제도화된 스포츠를 즐기면서 얻은 재미는 교육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체육교사는 교과내용을 선정할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잘 하는 스포츠를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며 교과활동이 불가능하면 교과외 활동으로 개설해서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열의를 보인다. 체육교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이토록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학창시절 자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 스포츠를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두 체육교사는 스포츠에 대한 자신의 유쾌한 경험을 발전시켜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7). 체육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 권미숙(2004).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초기 6개월간의 교직 적응 과정 연구: 내러티브적 접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청주.
- 김기철(2002).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체육교과 전문지식 형성과정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 김영희(2006). 놀이를 잘 하는 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5(1), 3-15.
- 김정건(2004). 초등학생 시기의 스포츠 참여경험이 중학생 시기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교육대학원, 서울.
- 류태호(2000).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동연, 박동환(2001).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스포츠선호도에 따른 체육수업지도의 내실화 방안. 초등교육연구, 12, 111-123.
- 박상범, 정우현(2000).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8(1), 85-96.
- 손천택(2009). 체육교수학습론. 서울: 보경문화사.
- 안진호, 이근모, 김준(2008). 온라인 스포츠게임 참가 중, 고등학생의 몰입경험이 스포츠 참여, 스포츠가치관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7(6), 197-208.
- 유정애(2007).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서울: 대한미디어.
- 이상일(2010). 방과후 체육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스포츠몰입 및 학교생활만족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1), 41-54.
- 이영희, 이수식(2006). 학습자의 통제소재와 자기효능감이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사고개발, 2(2), 117-130.
- 이재용(1994). 교사의 전문지식 형성: 한 중학체육교사의 사례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 47-62.
- 이효진(1996). 초등학교 초임 체육교사의 교직사회화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2), 29-38.
- 임승엽(2000). 기혼여성의 생활체육 참가와 운동몰입경험 및 가정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전용진(2008). 한 중학생의 학교 일상 속 운동장 의미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인천.

- 전현욱, 조순목, 정영정(2009).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의 일상 속 축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4), 175-198.
- 최의창(2010).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1-24.
- 최희진(2006). 중학교 초임교사의 체육교과 전문지식 형성과정. 중등교육연구, 54(2), 27-52.

- Arnold, P. (1997). *Sport, ethics and education*. London: Cassell.
- Bandura, A.(1986).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Csikszentmihalyi, M. Csikszentmihalyi, I. S.(1995).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ndinin, J. & Connelly, M. (1999). *Shaping a Professional Identity: Stories of Educational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 Dishman, R., Motl, R., Sallis, J., Dunn, A., Birnbaum, A., Welk, G., Bedimo-Rung, A., Voorhees, C., & Jobe, J. (2005). Self-management strategies mediate self-efficacy and physical activ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9(1), 10-18.
- Freeman, W. (1987).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Macmillan.
- Grossman, P. L. (1990). *The making of a teacher: Teacher knowledge and teacher education*.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Jones, C. (2005). Character, virtue and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1(2), 139-151.
- Ruggerio, V. R. (1984). *The art of teaching: a guide to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e thought*. N. Y: Harper & Row, Publishers.
- Sparks, A. (1989). The achievement orientation and its influence upon innovation in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Review*, 12(1), 36-43.

· 논문접수 : 2011년 1월 1일/ 수정본 접수 : 2011년 3월 8일/ 게재승인 : 2011년 3월 11일

ABSTRACT

The Meaning and Value of Sport Experienc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during Their School Days

Chang-Wan Yu(Teacher, Seonyoo Middle School)

Cheon-Taik Son(Professor, Inche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aning and value of sport experienced during the period of adolescence and explore how those pleasant experiences affect the selection of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To achieve the suggested purpose two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selected. The procedure of narrative study was adopted to collect data through documents, instructional diary, interview. 'M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has developed his sports experiences from "fun table tennis" through "fruit of competition" and "the gap of liking and teachings" to "passion and growth to teach table tennis." 'Han' physical education teacher has developed his sports experiences from "baseball as curiosity and envy" through "sport following fashion" and "enthusiasm of teaching and failure" to "teaching favorite sports." Eventuall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selecting sports which they were competent of they liked as content to teach.

Key Words : sports experience, flow, sports recognition, physical education teacher

